광남일보·드림투데이·광주경총 공동 주최…초보 탈출 위한 주식 기초 특강

“AI 성장 지속…불확실성 시대엔 자산배분이 해답”

김남기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주 수석매니저 강연
빅테크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
“시장 예측보다 투자 원칙 중요”…100여명 참석 호응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초보 탈출을 위한 주식 기초: 하반기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주제 강연에서 김남기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주 수석매니저가 지역 기업 대표와 경제계 단체 관계자들에게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광남일보와 드림투데이,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시장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주 수석매니저는 4일 광주 북구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초보 탈출을 위한 주식 기초 : 하반기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강은 광남일보와 드림투데이,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기업 대표와 경제계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반기 국내외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수석매니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미국 증시가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AI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매니저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실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AI 확산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매니저는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센터와 서버,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는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이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력과 방산,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 역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중심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지원이 맞물릴 경우 한국 시장의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하반기 금융시장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 기대감은 긍정적 요소지만 물가와 금리, 국제 정세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매니저는 “좋은 기업과 산업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균형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투자환경의 가장 큰 변수로 물가와 금리를 꼽으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매니저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 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재차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상승장에 대한 기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며 “특정 자산이나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금 등 대체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 기회를 확보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 예측보다 투자자의 태도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매니저는 “시장이 급등할 때는 과도한 낙관론이, 급락할 때는 지나친 비관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투자 판단을 바꾸기보다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꾸준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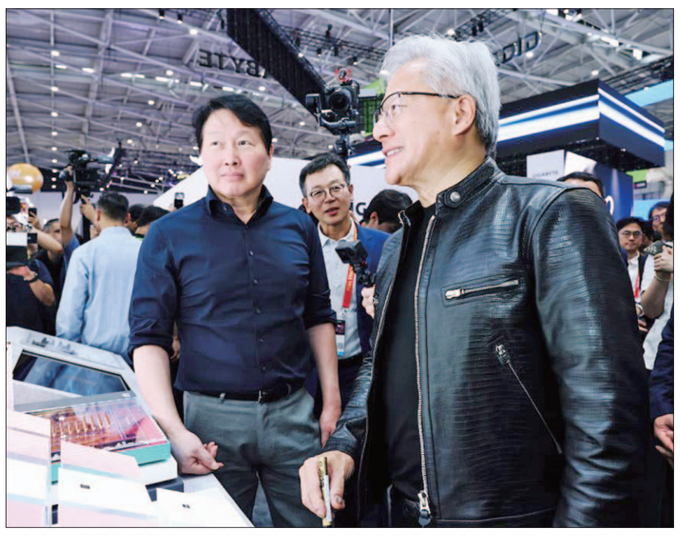
그러면서 “투자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다”며 “성장 산업에는 적극 참여하되 위험 관리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원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만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젠슨 황, 전세기로 방한…나흘간 광폭 행보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7일 게임업계·8일 AI 스타트업
LG·현대차·네이버 방문…예능 출연·프로야구 시구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컴퓨텍스 2026’에 참석,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한국에 입국해 나흘간 한국 AI 생태계를 훑으며 종횡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CEO는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하고 게임업계,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과 학생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재계와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5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CEO는 도착 직후 곧바로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방한 직후 반도체와 AI, 로보틱스 사업 관련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5일 저녁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을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회장과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서 만나 화제가 됐던 이른바 ‘깐부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등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 등로 애초 예약한 회동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수동 외에 홍대입구나 을지로 일대 음식점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황 CEO는 7일에는 서울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게임과 AI 분야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0월 황 CEO 방한 당시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아이온 2’와 ‘신더시티’를 출품했고, 독일 게임스컴 기간 엔비디아 PC 게이밍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엔비디아와 게임 분야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방한 마지막 날로 예상되는 8일에는 일정이 더욱 촘촘하다.

황 CEO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 AI·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업스테이지, 노타(486990), 베슬AI 등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과 로봇 스타트업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를 보유한 AI 스타트업으로, 엔비디아 GPU 자원과 개방형 AI 모델 네모트론 등을 활용해 소버린 LL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황 CEO가 국내에서 로봇 스타트업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CEO는 같은 날 서울대 AI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도 방문하는 방안도 서울대측과 조율 중이다. 특히 황 CEO는 연구기관 방문과 별개로 서울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피지컬 AI 협력을 주요 의제로 LG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사옥을 차례로 찾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황 CEO가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LG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등 주요 계열사들이 배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성남에 있는 네이버 제2사옥 1784 방문도 유력하다.

네이버 1784는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 황 CEO의 방문이 성사되면 네이버와 엔비디아 간 AI 인프라, 로봇, 데이터센터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 같은 산업계·학계 일정 외에도 방한 기간 대중과 접점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주말에 시간을 내 tvN 토크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에서는 시구자로 나설 예정이다.

황 CEO는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친 뒤 8일 늦은 오후 또는 9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헬스 앱 개편…워치 신기능 공개

수면·활동·식이·생체 징후 등 주요 건강 지표 확인

삼성전자가 삼성 헬스 앱을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신기능을 공개하며 디지털 헬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부터 수면·활동·식이·마음 건강·생체 징후 등 5대 건강 영역을 중심으로 삼성 헬스 앱을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신규 기능은 생체 징후,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청력 등이다.

이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신체 변화를 더 쉽게 인지하고 일상 속 건강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먼저 ‘생체 징후’ 기능은 삼성 헬스 사용자가 꾸준히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걱정되는 신체의 변화나 문제가 감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워치 사용자가 일주일 이상 워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면 수면 중 다섯 가지 주요 생체 지표인 심박수, 심박변이도, 호흡률, 피부 온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추적하고 개인의 기준값을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을 때 갤럭시 워치를 통해 알림을 제공한다.

또 삼성 헬스는 ‘심장 건강 점수’를 제공해 일상 습관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수면, 활동량, 체성분 및 혈관 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심장 건강 점수를 보여주고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건강 관련 체력 요소를 분석해 ‘신체 체력 지수’를 제시한다.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 등 주요 지표를 같은 연령대의 삼성 헬스 사용자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 강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삼성 헬스는 건강 관리의 범위를 주변 환경까지 넓혔다.

삼성 헬스는 ‘청력’ 기능을 도입해 갤럭시 워치로 주변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고 갤럭시 버즈로 듣는 이어폰 음량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 수준과 노출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소음 노출 정도가 안전한지 파악하고,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사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최종당화산물 지수’에도 트렌드 차트를 추가해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사용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건강 변화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혈당, 조리법 등 최종당화산물 지수 연관 콘텐츠를 통해 일상적인 식이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MX 사업부 박헌수 디지털 헬스 팀장은 “삼성 헬스는 갤럭시 워치를 통해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AI 기반 인사이트로 분석·제공,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